

『傷寒論』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하여 桂枝甘草龍骨牡蠣湯 투여 후 호전된 안면홍조 치험 1례

정수영¹ · 김연주¹ · 이상기^{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재)제주한의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정방한의원²

Case Report of Facial Flush Treated by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Su-young Jung¹ · Yeon-ju Kim¹ · Sang-kee Lee^{2*}

Jeju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220, 213-3 chumdan st., Jeju-si, Jeju-do, Korea¹
Jeongbang Korean Medical clinic, 46, Jungang-ro 42beon-gil, Seogwipo-si, Jeju-do, Korea^{2*}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on facial flush.

Methods: Facial flush was evaluated using photographs and questionnaires. The (VAS) and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were used to measure the improvement in facial flush symptoms.

Results: The visual findings were . The VAS score decreased from 10 to 0 after administration of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for 40 days. In addition, accompanying symptoms such as neck pain, palpitation, and insomnia were improve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was effective for emotional facial flush.

Conclusions: This study shows the effective treatment of facial flush using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Key words : Facial flush, Hot flush,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Shanghanlun*

* Corresponding author : Lee Sang-kee. Jeongbang Korean medical clinic, 46, Jungang-ro 42beon-gil, Seogwipo-si, Jeju-do, Korea. E-mail : dkom90@hanmail.net

· Received : 2020/12/10 · Revised : 2020/12/30 · Accepted : 2020/12/30

서 론

안면홍조는 갑작스럽게 열이 나며,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현상으로 폐경기 여성에서 우울증에 동반하여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및 환경적 영역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전신질환, 약물, 알코올, 식습관, 급격한 감정 변화, 특히 여성 폐경 등에 의해 유발되는 안면홍조는 심계항진, 불안, 발한, 오한, 빈맥 등이 흔히 동반 된다^{3,4)}. 한의학에서 안면홍조 증상은 心火, 胃熱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 된다⁵⁾.

안면홍조 증상에 대한 국내 한의학 치료 관련 연구로는 침⁶⁾, 二仙湯⁷⁾, 黃連解毒湯⁸⁾ 등에 의한 폐경 및 갱년기의 치험례가 대부분이며, 일부 심인성 안면홍조⁹⁾, 뇌경색 환자¹⁰⁾, 상한론에 근거한 일과성 열감¹¹⁾ 치험례가 보고되었다.

본 증례에서 사용한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은 『康平傷寒論·辨太陽病』 118조에 최초로 ‘火逆下之, 因燒針煩燥者, 桂枝甘草龍骨牡蠣湯主之’라고 기록되어 있다¹²⁾. 桂枝甘草龍骨牡蠣湯과 연관된 한의학 임상 연구로 桂枝加龍骨牡蠣湯과 芍藥甘草湯을 처방하여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환자 치험례¹³⁾, 중국에서 桂枝甘草龍骨牡蠣湯 가미방의 심신경관능증(心神經官能症) 치료¹⁴⁾가 보고된 바 있으나, 桂枝甘草龍骨牡蠣湯 原方에 대한 안면홍조를 포함한 임상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증례에서는 『傷寒論』 변병진

단체계에 근거하여 진단한 안면홍조 환자에게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을 처방하여 호전된 환자의 치험례를 보고함으로써, 안면홍조의 한의학적 치료 및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 및 상용화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증 례

1. 환자명 : ○ ○ ○

2. 환자 기본 정보 : 여성 / 50세 / 166cm / 53kg / 농협 직장인

- 원래 정규직으로 장기간 근무하였으나 휴직 후, 최근 계약직으로 복귀하면서 나이차가 많이 나는 후배 동료들과 업무상 갈등 관계에 있다고 느끼고 있음

3. 주소증(C/C) : 안면홍조

4. 발병일(O/S) : 2020년 3월 초

5. 현병력(P/I) :

① 2020년 3월 초에 얼굴에 작고 붉은 점이 나타나서 없어지지 않아, 모 피부과에서 COVID-19로 인한 장시간 마스크 착용에 의한 알레르기로 진단, 약물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② 3월 14일경에는 더욱 악화하여 외용제 연고를 추가하였으나 더욱 악화하여 얼굴에 벌겋게 열이 오르면서 핏빛으로 변하였으며, 환자는 피부가 타는 듯한 열감을 느끼게 됨,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리, 수면이 곤란하

였음. 민간요법으로 알로에, 馬油 크림을 수시로 외용하였으나,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열이 났으며,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시로 집으로 가서 얼음찜질을 해야 할 정도로 생활에 지장이 있었음. 얼굴에는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됨.

③ 3월 18일부터 다른 피부과에서 약, 주사, 연고, 로션 치료를 병행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④ 3월 25일, 본원에 내원함

6.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7. 과거력 : 특이사항 없음

8. 현재 복용 중인 약물 : 없음

9. 주요 임상증상

- 1) 食慾 : 양호
- 2) 消化 : 소화 기능이 좋지 않고, 자주 제한
- 3) 口部 : 갈증 없음.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신다. 건강에 좋다고 하여 일부러 챙겨서 마심
- 4) 汗出 : 원래는 땀이 안 나는 편인데, 안면홍조 발생하면서 많아짐
- 5) 大便 : 2~3일에 1번 보는데, 대변은 며칠 못 봐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단단한 편
- 6) 小便 : 특이사항 없음
- 7) 寒熱 : 추위를 더 탐
- 8) 頭面 : 몸이 차가울 때, 두통이 있고, 소화가 안 되면서 머리가 아픔
- 9) 呼吸 : 특이사항 없음
- 10) 胸部 : 두근거림이 심하고 답답함
- 11) 腹部 : 특이사항 없음
- 12) 睡眠 : 최근 얼굴의 열감 때문에 수면

이 곤란함

13) 身體 : 뒷목과 견정혈 부위가 자주 뭉쳐서, 마사지를 자주 받음

14) 性慾 : 특이사항 없음

15) Stress 對應 方式 : 1주일에 한 번씩 뒷목어깨, 등을 풀기 위해 마사지를 받거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함

16) 婦人 : 2018년 하반기부터 생리주기가 20~40여 일로 불규칙해짐

10. 진단 및 평가 방법

1) 辨病診斷 및 條文의 선정

(1) 臨床 所見

① 규칙적인 월경이 2018년부터 불규칙해지면서 20~40일 주기로 변하였고, 최근 업무 중 스트레스가 가중되면서 안면홍조 증상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폐경기 및 심인성 복합 증상과 관련된 안면홍조로 판단하였음

② 다만 얼굴의 피부의 발적이 심한 상태로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피부 조직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안면홍조라고 판단하였음

(2) 辨病 診斷 : 太陽病

① 脉浮 : 계약직으로 복직한 이후에 나이가 많아 많이 나는 후배들과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주소증이 발생함

② 頭項強痛, 惡寒 : 과도한 활동으로 인해 머리와 뒷목, 어깨가 굳어지며 아프고 추워지면 잘 체하면서 두통까지 이어져 추위에 더 과민하게 반응함

위 맥부 頭項強痛 惡寒을 근거로 하여 大

陽病을 진단하였다.

(3) 條文 診斷 : 118條 火逆下之, 因燒針煩燥者, 桂枝甘草龍骨牡蠣湯

① 火逆下之 : 얼굴에 불이 가까워지는 듯한 상황(火)이 되면, 속이 뒤집히는 듯(逆)함

② 燒針 : 뒷목 통증과 소침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한 허 등¹⁵⁾의 증례 보고와 같이 이 환자도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뒷목과 어깨가 더 단단하게 짓눌려서 아파함

③ 煩燥 : 안면홍조에 의해 짜증(煩)과 피부의 건조감(燥)이 심해짐

2) 치료 평가 도구 : 치료 경과에 대한 평가는 육안적 소견, 얼굴 사진, Visual analogue scale (VAS)를 사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안면부 피부의 건조감과 열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IGA)을 사용하였다. IGA는 내원 시마다 시행하였고 얼굴 해당 부위의 발적 증상이 가장 심할 때 (very serve) 5, 증상이 없을 때(clear)는 0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Table 1).

환자가 내원하였을 때 주관적으로 자각하는 증상을 안면홍조 일기에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사용하여 증상이 가장 심할 때를 10, 증상이 전혀 없음을 0으로 평가 체크하도록 하였다. 안면홍조 시 나타나는 발한, 가슴 두근거림 및 수면장애 정도, 안면홍조의 일일 발생 빈도 및 지속 시간은 초진과 3주 후 재진 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11. 치료적 중재

1) 한약 투여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을 40일간 투약하였으며, 1일 3회, 1회 120cc를 복용하도록 하

였다. 환자에게 투여한 1일분의 약재 구성 및 복용량에 대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 생활지도

한약을 하루 3회 잘 챙겨서 복용하고 조급해하지 말고 뒷목, 어깨가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충분히 할 것과 건조하지 않도록 습도를 관리하며, 물을 자주 마시고,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먹고, 과식하지 말고, 자주 걷도록 하였다.

Table 1. Investigator's Global Assessment (IGA) Grade

Index	Grade
Very Severe	5
Severe	4
Moderate	3
Mild	2
Almost Clear	1
Clear	0

Table 2.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Gyejigamchoyonggolmoryeo-tang¹⁶⁾

Herbal name	Daily dose(g)
桂枝 <i>Cinnamomi Ramulus</i>	3
甘草 <i>Glycyrrhizae Radix et Rhizoma</i>	6
龍骨 <i>Fossilia Ossis Mastodi</i>	6
牡蠣 <i>Ostrea Testa</i>	6

Dried herbs above were decocted in boiled water. 120cc tid, 40days.

12. 치료 기간 및 경과

1) 기간 : 2020년 3월 25일-2020년 5월 4일(41일)

2) 경과 (Table 3, Fig. 1-2)

(1) 초진일(1st day) : 2020년 3월 25일

① 안면홍조 IGA : 5

② 안면홍조의 정도 VAS 10으로 가장 심함, 발한,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모두 10

③ 안면홍조가 심하여 피부의 발적과 심계 증상이 아주 심하고 수면장애로 정상 생활이 어려움

(2) 1일 후 재진(2nd day) : 桂枝甘草龍骨牡蠣湯 복용 1일 후

① 안면홍조 IGA 5 → 4

② 안면홍조의 정도 VAS 가장 심했던 상태 10점에서 8점으로 호전됨

③ 얼굴로 열은 나지만 잠을 자고 심계 증상이 약해짐

④ 초진 시 침 치료와 한약 복용 하루 만에 호전 반응, 침 치료는 바쁘면 오지 말고 한약만 하루 3회 반드시 빠지지 말고 복용하라고 함

(3) 1주 후 재진(8th day) : 桂枝甘草龍骨牡蠣湯 복용 7일 후

① 안면홍조 IGA 5 → 2

② 안면홍조의 정도 VAS 가장 심했던 상태 10점에서 5점으로 호전됨

③ 안면홍조가 아주 심했던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한 정도가 되어 견딜만한 상태

④ 심계 증상과 수면장애는 70% 호전됨

(4) 3주 후 재진(21st day) : 桂枝甘草龍骨牡蠣湯 복용 20일 후

① 안면홍조 IGA 5 → 1

② 안면홍조의 정도 VAS 가장 심했던 상태 10점에서 1점으로 호전됨

③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 호전됨

④ 전반적 건강 상태 아주 양호함, 재발의 염려로 40첩 20일분을 더 복용하기로 함

⑤ 계약직 농협 근무를 하는 관계로 내원하는데 부담이 되어서 전화 통화로 상태를 체크하기로 함

(5) 6주 후 최종(41st day) : 桂枝甘草龍骨牡蠣湯 복용 40일 후

① 2020년 5월 초에 전화 통화로 안면홍조(VAS → 0)와 심계 증상, 불면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치료 종결함

Table 3. The clinical progress on the hot flush patient.

Date	VAS				Number of occurrence of facial flushing (per day)	Duration time per count of facial flushing (min)
	Hot flush	Sweating	Palpitation	Sleep disorders		
1 st day (2020. 3. 25)	10	10	10	10	frequently	all day long
21 st day (2020. 4. 14)	1	1	1	1	vague	less time



1st day (2020. 3. 25) 8th day (2020. 4. 1) 21st day (2020. 4. 14)
 Fig. 1. Photo images of the hot flush of the Pat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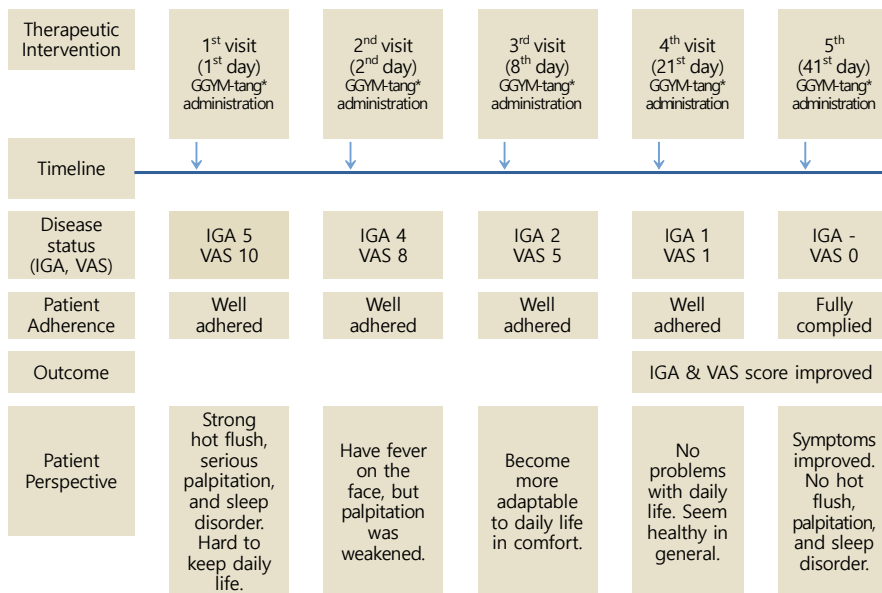


Fig. 2.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This figure's category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Disease status, Patient adherence, Outcome and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GGYM-tang : Gyejigamchoyonggolmoryeo-tang

고찰

안면홍조에 대한 국내 한의학 치료 관련 연구는 2007년 이후 20여 건이 보고되었으며, 갱년기 여성의 血瘀, 腎陰虛, 腎陽虛, 脾心兩虛, 心腎不交, 心肝火旺 등의 변증¹⁷⁾에 대한 침, 한약 등의 임상 연구와 치험례가 대부분으로 二仙湯, 黃連解毒湯 등의 한약 처방 효과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심인성 안면홍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心火로 변증이 심한 환자에게 加減黃芩湯을 처방하여 호전된 증례보고⁹⁾가 있으며, 중풍 환자의 한방 재활 치료 중 발생한 상열감의 치료 효과 보고¹⁰⁾, 상한론 변병진단체계에 근거하여 白虎湯을 처방한 후 일과성 열감이 개선된 치험례¹¹⁾가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기존에 발표된 안면홍조 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임상 연구들은 대부분 열(火)을 치료하는 한약이나 침 치료법을 사용하였다.

본 증례의 환자는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안면홍조로 인해서 얼굴 피부 조직이 손상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Fig. 1)였다. 이 환자는 다른 피부과 의원의 내복 및 외용제를 복합한 약물 치료에 의해서 호전되지 않았으나, 『傷寒論』 변병진단체계를 통해 大陽病 118조로 진단하였으며, 조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을 20일간 복용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었고, 다시 20일분을 복용하는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Fig.2)는 사실을 볼 때 명확한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증례의 환자는 계약직으로 복직한 이후의 시기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후배들과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도, 일을 그만두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안면홍조가 발생하였고,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뒷목, 어깨의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이 증상들은 추워지면 더욱 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안면홍조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는 정황들을 종합하여 [증례, 10 진단 및 평가 방법]에 기록된 대로 脉浮, 頭項強痛, 惡寒이 안면홍조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大陽病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안면홍조가 심하여 피부가 불에 타는 듯 괴로운 느낌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며, 그럴 때는 속도 갑갑하여 체하며, 이런 상태가 되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 상태가 되며, 직장 내에서도 위축될 정도의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으며, 뒷목과 어깨가 더욱 단단하게 짓눌려, 주소증이 더 심해지며, 짜증과 피부의 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면서, 안면홍조도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火逆下之, 因燒針煩燥’로 진단하게 되었다.

이 환자의 증례 외에도 본원에서는 환자의 연구 자료 활용 동의를 구하지 못했던 다른 3명의 환자들에게서도 동일한 조건을 확인하여 『상한론』 118조로 진단하고 桂枝甘草龍骨牡蠣湯으로 처방하여 효과를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辨大陽病」 118조는 다수의 안면홍조 환자들에게 충분히 유의한 치료적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 환자들은 평소 몸의 움직임이 크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이며, 안면홍조가 나타날 때 소화기가 불편해지며, 안면홍조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면서 뒷목, 등, 어깨 부위가 단단하게 잘 멎치며, 얼굴에 건조함이 심하며,

짜증과 말이 많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은 이런 특수한 조건을 만족하는 안면홍조 환자에게 적합한 처방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국내에서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은 수면의 입면 및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실험¹⁸⁾연구가 보고되었고, 중국에서 신경 기능 교란이 야기되는 순환 기능 실조 및 심혈관 증상이 주증상인 심신경관능증(心神經官能症, 神經-循環系統襄弱症) 73례를 桂枝甘草龍骨牡蠣湯 가미방으로 치료한 임상관찰에 대한 張의 연구¹⁴⁾가 보고된 바 있으나, 안면홍조에 대한 임상 연구는 본 증례 연구가 최초이다.

다만, 본 연구에 사용된 증례는 단일 증례로서 다수의 환자를 통해서 재현함으로써 임상 응용 시 조건을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본격적인 임상 연구에 앞서 다양한 세포, 혹은 동물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桂枝甘草龍骨牡蠣湯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안면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약 대조군 시험설계를 통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수행하여 임상적 근거 수준이 높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일상생활이 힘들고, 피부의 심각한 조직 손상을 유발할 정도로 중증인 안면홍조 증상을 호소하는 폐경기 여성 환자를 『傷寒論』 변병진단체계에 근거하여 大陽病 118 조로 진단하여 桂枝甘草龍骨牡蠣湯을 40

일간 투여한 결과, 육안 소견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VAS가 10에서 0으로 호전된 유의미한 치료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

1. Kim DI, Kim SW, Kim JW, Kim CW, Yoon MH, Lee TK, et al. Korean traditional medicine gynecology & obstetrics. Seoul : Jeong Dam. 2001 : 218-34.
2. Song MJ, Joe SH, Jung HG. Characteristics of middle aged depressed women with hot flushes.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017 ; 25(2) : 176-84.
3. Yoo HK. Hot flush and sweating : recent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J Korean Soc Menopause. 1996 ; 2(2) : 132-46.
4. Miller HG, Li RM. Measuring hot flashes : summary of a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orkshop. Mayo Clinic Proceedings. 2004 ; 79(6) : 777-81.
5. Han JM, Kang NR, Ko WS, Yoon HJ. The study on the korean and western medical literature for skin aging-wrinkle, hyperpigmentation, dry skin, facial flush.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4 ; 27(2) : 1-13.
6. Kim KH, Kim DI, Hwang DS, Lee JM, Kim HJ, Yoon HM, Jung HJ, Kang KW, Lee MS, Choi SM. Methodologic lessons learned from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of acupuncture for hot flashes in peri- and postmenopausal women. The Journal of Korean obstetrics & gynecology. 2010 ; 23(1) : 42-52.

7. Kim BM, Jo HG. Administration progression and adverse event report of Er-xian decoction for menopausal hot flushes : case report and review of literature. J. Int. Korean Med. 2019 ; 40(1) : 154-63.
8. Lee AR, Son SH, Park SJ. 3 cases of postmenopausal hot flush treated with Hwangryunhaedoktang-gamib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7 ; 30(4) : 176-83.
9. Cho JG, Seo S, Park SJ, Han SR. 3 cases of emotional facial flush treated with Gagamhwangeum-tang. J Korean Med Ophthalmol Otolaryngol Dermatol. 2015 ; 28(1) : 160-8.
10. Hwang GS, Jang CY, Lee SY, Kim JH, Woo C, Shin YJ, Sin SH. A case study of a stroke patient with hot flushes treated with traditional korean medicine. J. Int. Korean Med. 2016 ; 37(5) : 691-7.
11. Ha HY, Lee JH, Lee SJ. A case report of hot flushes treated by herbal medicine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 J of KMediACS. 2015 ; 7(1) : 127-32.
12. Lee SI, Cho HR. Comparison of shanghanlun. Seoul : KMediACs publishing house. 2015 : 32.
13. Suh HU, Hwang EY, Jung SY, Kim JW. A case of a panic disorder (with Agoraphobia) patient improved by herbal extracts - Gyejjigayonggolmoryo-tang and Jakyakgamcho-tang.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0 ; 21(4) : 207-18.
14. Jang HH. Clinical observations of 73 treatment cases of afferent neuron paralysis using Gyejjigamchoyolgolmoryeo-tang. Chinese Medicine Clinical Observation. 2003 ; 3 : 22-26.
15. Heo J, Cho SH, Lee SJ. Four case reports of neck pain based on Shanghanlun 燒針 provisions. J. K. Mediacs. 2018 ; 10(1) : 95-114.
16. Lee SI, Cho HR. The comparisons of the Shanghanlun. Goyang : KMediACs Press. 2020 : 210.
17. Oriental obstetriscs and gynecology textbook compilation committee. Oriental obstetriscs and gynecology. Seoul : Jungdam. 2007 : 237-64.
18. Kim TY, Leem KH. Effects of Gyejjigamchoyonggolmoryeo-tang on sleep latency and total duration of sleep induced by thiopental sodium in mice. The Korea Journal of Herbology. 2020 ; 35(6) : 29-34.